

■ 2024년도 예비예술인지원 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명 : 2024년도 예비예술인지원(예술대학의 현장연계지원, 예술단체의 최초발표 지원) 1차 서류심의
- 회의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00~17: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경식, 윤제원, 정은영, 최연구, 하경희, 한정희, 허난영

본 사업은 예술대학, 민간단체, 지역재단, 청년예술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멘토링, 아카이빙, 향유, 일자리, 창업 등 성과 및 확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30건,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 발표 지원' 55건, 총 85건이 신청하였습니다. 행정결격을 제외한 83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의는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30%), 계획의 충실성(40%),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20%)을 기준으로 예비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위원회는 공모요강을 통해 필수 수행요건과 중점 수행방향을 제시하였고 심의 위원들은 지원서를 통해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30%), 계획의 충실성(40%),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20%)을 기준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전수검토 후 대면심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각 심의위원 점수의 합계 점수에 의한 순위를 우선으로 2차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제도 권고에 따라 단체와 대학의 지역 안배를 일부 고려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서 계획이 주도면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지원대학과 단체의 열정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사업은 정규 교과목 신설 또는 개편과 교과 연계, 전업예술, 인턴십, 연수단원, 일자리, 창업 등과의 연계 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았고 적정예산의 배분과 예비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의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술단체의 최초발표 지원 사업은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역량, 예비예술인 성장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여부, 멘토링, 연수 등 성장지원 관리계획, 성과 아카이빙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수행의 전반적인 진행이 예비예술인에게 집중되고 지원되는 계획인지 아니면,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인지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를 통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28건,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 지원' 18건, 총 46건의 대학과 단체를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단체나 대학들은 내용이나 구체성의 아쉬움보다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의 아쉬운 미선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을 기약하며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차 서류심의로 선정된 단체와 대학들은 2차 인터뷰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예비예술인지원 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명 : 2024년도 예비예술인지원(예술대학의 현장연계지원, 예술단체의 최초발표 지원) 2차 인터뷰심의
- 회의일시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 2023년 12월 5일(화) 09:00~18:30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 2023년 12월 6일(수) 09:30~17: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경식, 윤제원, 정은영, 최연구, 하경희, 한정희, 허난영

본 사업은 예술대학, 민간단체, 지역재단, 청년예술가 단체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멘토링, 아카이빙, 향유, 일자리, 창업 등 성과 및 확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서류심의를 통해 2차 인터뷰심의 대상으로 28개의 단체와 18개의 대학을 선정하였으며(1차 지원심의 총평 참고), 문화일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 7명의 심의위원이 46건에 대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 후 제시된 사전 질의서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2차 인터뷰 심의는 각 단체와 대학의 역량과 관심, 그리고 계획의 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3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 진행의 구체성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하는 등 인터뷰 심의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각 대학과 단체, 그리고 참여단체의 본 사업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사업의 방향이 단편적이고 일회성 기획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복합적인 효과를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대학은 정규교과과정 연계를 통한 학생참여도 제고, 컨소시엄 소속단체의 연계 체계성 및 실질적 참여여부, 향후 정규교과목 반영계획 등의 중점 수행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술단체는 예비 예술인 선발심사와 공정성, 예비 예술인의 주도성, 지역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의 충실성 등의 중점 수행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최종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14건,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21건, 총 35건의 대학과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단체들은 내용이나 구체성의 아쉬움보다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의 아쉬운 미선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을 기약하며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사와 연계하여, 학교 밖의 공연장, 단체, 공간 등의 예술현장과 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이 부디 잘 이루어져서, 대학이 주도하는 예비예술인 지원과 육성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현장 진입이 어려운 우리 예비예술인이 교육기관의 주도성을 통해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를 갖길 기대해 봅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현장의 중심에서 우리 예비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장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신진예술가 등용의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단체에서는 본 사업의 성과를 위해 더 많은 예비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제시된 예산이 기준과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4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신 모든 대학과 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예술인이 미래의 예술을 이끌어가는 성숙한 예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